

금남로를 걸으며 ‘민주·역사·인문의 정취’ 느껴보시라!

자치CEO

임택

광주 동구청장



거대한 역사의 지문을 간직한 채 민주 의 함성을 품은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부터 광주 수창초등학교 너머 까지 이어지는 이 거리는 광주의 동맥이자, 역사를 떠받치는 뼈대와도 같다. 3·15 부정선거로 ‘국(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가 벌어지고, 한국민주주의 초석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물론이거니와 6월 민주항쟁, 고(故) 이한열·박승희 민주열사의 노제가 열렸던 이곳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과거 타 오르는 화염병, 최루탄 가스로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시위 현장은 현재 수십만 명의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판결을 함께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았다.

역사를 품고,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간직한 금남로를 걸을 때면 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역사의 한복판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젠 제의(祭衣)를 넘어 축제로 승화된 ‘5·18 전야제’를 비롯해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 버스킹 월드컵’, ‘촛불집회’ 등 시민들에게 넉넉

한 품을 내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거리가면서도 광장이고, 거대한 그림을 품은 캔버스 같은 금남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걷자임’을 운영 중이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오후 2~8시)마다 금남로 공원부터 전일빌딩 245 앞 구간이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자유향공간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금남로가 갖고 있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인 공간이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마음 편히 거닐면서 쉬고,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이다. ‘인문도시 광주 동구’답게 곳곳에 자리한 동명책방·소년의 서 등 지역 서점을 연계한 책방 부스가 운영대빈백에 앉아 책을 보기도 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은 거리가 곧 공연장이 된다. 상인회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마련한 장터는 탄핵 정국 속에 갈수록 더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남로를 아우르는 광주의 심장인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광주읍성유하, 129년의 세월을 간직한 광주서석초교 등 다수의 유·무형의 국가유산이 수도룩한 그 중심에는 ‘인문도시 광주 동구’가 있다. 우리만이 가진 국가유산과 인근 문화시설을 활용해 밤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나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광주문화재 야행(동구 달빛걸음)’을 개최하는 곳 역시 광주 자치구 중 동구가 유일하다. 낮에 보는 거리와 밤에 만나는 거리는 다를

뿐더러, 야간경관이 주는 특별한 느낌에 고요한 정취가 더해지면 그 설렘은 몇 배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힐링이 된다.

국가유산청 주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동구가 9년 연속 선정된 덕분에 올해부터 ‘광주국가유산야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돌(石)’을 테마로 하는 ‘돌의 안부(2023)’, ‘돌의 기억(2024)’에 이어 3번째 마지막 시리즈로 ‘돌의(義) 시간(2025)’을 선보인다. 무등산의 상서로운 돌(서석)이 11세기 석수장이에 의해 석등(재명석등)이 되고, 16세기 안전한 도시를 꿈꾸는 성돌(광주읍성)을 쌓았던 구전을 스토리텔링 한 8야(夜)를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4월 25~26일(오후 5~10시) 이틀간 5·18민주광장, 서석초교, 빛의 음성 일원을 찾으면 국가유산의 가치와 동구 문화재만의 특별한 야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듯이 든든한 역사적 뿌리가 깊으면서도 민선 7·8기 출범 이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낮과 밤이 즐거운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도시가 바로 광주 동구다. 무등산 자락에서 시작돼 유유히 흐르는 광주천을 따라 금남로와 충장로를 아우르는 곳, 주민들 스스로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인문 정신이 확산되는 동구야말로 ‘광주의 심장부’가 아닐까 싶다. 봄꽃 만개한 4월,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금남로, 역사와 문화를 품은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능할 수 있는 ‘인문도시 광주 동구’로 귀한 걸음 해주시길 바란다.

독자투고

경찰은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6주간) 행정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재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범죄예방 활동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은 최근 산불·탄핵 집회 등 국가 중요 상황이 마무리됨에 따라, 평온한 국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치안활동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4월부터는 112신고 등 치안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 축제·연휴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범죄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 다 같이 동참을

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발생 우려 장소에 대한 우선 점검 등 자연재해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찰 기능에 구분 없이 가시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기능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협력단체 등과의 협력 치안을 활성화해 대대적인 방법활동을 펼치고, 범죄 분위기를 차단에 평온한 일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강절도 예방과 축제장 등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 대한 혼잡경비 등 시기와 장소에 맞는 맞춤형 방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들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나설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문단속을 하고, 귀중품은 집 안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현금 은행에 예치하는 등 스스로 생활 수칙을 실천해야 할 때다.

기획특 <영암경찰 범죄예방계장 경감>



전일광장 박안수 경제학박사·칼럼니스트

양심(良心) 그리고 법(法)

이 시대 존경받고 있는 어느 석학(碩學) 교수께서 지도자인 리더들에게 ‘양심(良心)’을 화두로 던졌다. 석학은 강원도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 호주제 폐지도 앞장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본디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양심에 대한 정의를 무겁게 내리고 있다. 유사 단어인 도덕, 윤리, 정의, 공정과도 일맥상통하여 일정 부분 혼용되기도 한다. 이와 반면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칙 조례 따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월 25일은 ‘법의 날’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수년 전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 명의의 ‘양심 냉장고’ 프로그램을 진행,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난다. 내용인즉 새벽녘이나 한밤중 차량 통행이 뜸한 곳에서 신호등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 차량 운전자에게 일명 양심 냉장고를 수여했던 프로그램이었다. 교통법규는 시간대나 인적이 뜸한 곳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함에도 양심까지 소환했다. 나중은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변질되어 상품에 눈이 먼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아직도 ‘골프’라는 운동 경기는 유일하게 심판이 없고 오직 선수의 양심으로 경기 결과표를 제출하는데, 몇 해 전 어느 프로선수가 양심을 속여 중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규칙과 양심을 속였다는 가혹한 결과이다.

철학자 이루어주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깃든 명예이다.’라고 역설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어느 유명 작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양심’이라고까지 했

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 사회·정치적 이슈의 큰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최상의 판결이라고 보는데, 먼 훗날 역사와 판결을 했던 후손들이 훌륭한 판결로 기억될지는 속제로 남는다.

몇 년 전 ‘어른 김장하’ 다큐 영화로 존경받았던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당한약방 김장하 어르신께서 재조명되고 있다. 60여년간 한약방을 운영하여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는데, 당시 장학금을 수여받았던 고학생 한 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양심냉장고 주인공의 한 명이다. 어르신은 ‘값으로려거든 이 사회에 환원하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는 일침(一鍼)의 메시지가 긴 여운으로 남는다.

며칠 전 유럽연합 프랑스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70여 년간 선교하셨던 ‘두봉(르네 마리 알베르 뒤퐁)’ 주교님이 선종하였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주교님은 이역만리(異域萬里) 타국 땅에서 선교하면서 늘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살면 기쁘다고 하였는바, 많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늘 ‘행동(行動)하는 양심(良心)’을 강조하여 대통령 서예 휘호(揮毫)의 행동하는 양심 글씨가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간혹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가 양심에 가책(呵責)을 느낀 나머지 기자회견을 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어느 유명 식품 관련 회사 대표가 몇몇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다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6월 3일 치러진다.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치 못한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욱 공정하고 양심적인 선거 관리로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